엄마의 비행기표와 까만 봉지

김○○

우리 집 거실 책장에는 갈색 가죽으로 된 두꺼운 엄마 결혼 앨범이 꽂혀 있다. 4학년 때 책장 정리를 돕다가 앨범 맨 뒤쪽에 삐져나와 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투명 테이프로 딱 붙어 있는 비행기표였는데, 영어로 된 엄마 이름 옆에 네모난 빨간 도장으로 취소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비행기표가 왜 여기에 붙어 있냐고 물어봤다가 엄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가 결혼식을 올리기 딱 일주일 전에 울산에 사시던 외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런데 외할머니랑 외삼촌들은 신부인 엄마가 울다가 결혼식을 망칠까 봐 말을 안 해주고 비밀로 했다. 식구들은 엄마 몰래 대전현충원에 모두 올라와서 장례를 치르고 곧장 결혼식장으로 왔던 것이다. 결혼식 전날 밤에 식구들 눈이 왜 그렇게 시뻘겋게 부어 있는지, 왜 다들 피곤한 얼굴로 억지웃음만 짓는지 엄마만 새카맣게 몰랐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식구들이 울면서 사실을 말해줬을 때, 엄마는 너무 서럽고 슬퍼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했다. 결국 엄마는 결혼식 다음 날 타려던 신혼여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곧바로 차를 타고 대전현충원으로 달려와 흙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다. 나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슬펐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손녀한테 그 큰일을 끝까지 숨긴 식구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 같아도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현충원에 갈 때마다 말이 없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가족은 대전현충원 병사묘역 3구역에 갔다. 외증조할아버지 비석 앞에 국화꽃을 꽂고 서 있는데, 날씨는 덥고 서 있는 다리도 아팠다. 솔직히 나는 얼굴도 한 번 못 본 할아버지라서 별로 슬프지도 않았다. 엄마가 비석에 적힌 이름을 물티슈로 문지르며 코를 훌쩍거리길래, 나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바닥에 개미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고 언제 집에 가나 시계만 봤다.

인사를 다 마치고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다. 묘역을 빠져나가려면 아래로 도랑이 흐르는 작은 시멘트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한다. 엄마 뒤를 졸졸 따라 걷다가 다리 난간 밑을 무심코 내려다봤는데 쓰레기가 가득했다. 잡초 덤불 사이에 납작하게 찌그러진 커피 캔이랑 흙탕물이 묻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뜯어진 과자 봉지들이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다. 비가 왔었는지 캔 주변에는 거무튀튀한 물이 고여 있었다. 딱 봐도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차 타러 가면서

슬쩍 던져버린 게 분명했다. 오래돼 보이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현충원까지 와서 쓰레기를 왜 저기다 버리고 가냐, 양심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다. 남이 먹다 버린 더러운 쓰레기를 내 손으로 만지기도 싫었고 옷에 흙탕물이 묻는 것도 딱 질색이었다. 그런데 주머니 속에 손을 찔러 넣었다가, 차에서 하리보 까먹고 쓰레기 담으라고 엄마가 챙겨준 검은 비닐봉지가 만져졌다.

앞을 보니 엄마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문득 10년 전 엄마 생각이 났다. 결혼식 다음 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울며불며 찾아왔던 길이 바로 이 다리였을 텐데. 외증조할아버지도 수많은 군인 아저씨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길도 여기였을 텐데. 비석 앞에서는 다들 세상에서 제일 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놓고, 나오는 길목에는 이렇게 얌체처럼 쓰레기를 팍팍 던져놓은 걸 보니 갑자기 부글부글 화가 났다. 외증조할아버지 집 대문 앞에 누가 쓰레기를 쏟아붓고 도망간 것 같았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 봐!"
나는 소리를 치고 다리 밑 비탈길로 내려갔다. 젖은 흙탕물에 발이 푹 빠지며 새 운동화가 시커멓게 물들었지만 상관없었다. 잡초 사이에 박혀 있던 커피 캔을 손으로 낚아챘다. 캔 구멍에서 고여 있던 시커먼 구정물이 왈칵 쏟아져 내 손가락을 적셨다.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에 "악, 더러워!" 소리가 절로 나왔다. 너무 더러워서 당장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고 봉지에 쑤셔 넣었다. 나뭇가지에 걸린 비닐 껍데기까지 팍팍 뜯어내고, 흙 묻은 플라스틱 컵까지 다 집어넣었다. 손으로 쓰레기를 쥐어 올릴 때마다 비석 뒤에서 보았던 스물한 살, 스물두 살 형들의 나이가 떠올랐다. 그 어린 나이에 총 들고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 누워 계신 곳인데, 고작 손에 흙탕물 묻는 게 싫어서 도망치면 진짜 부끄러운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지가 찢어질 것처럼 빵빵해지고 나서야 낑낑거리며 다리 위로 올라왔다. 내 손은 시커먼 흙탕물 범벅이었고, 양말까지 축축했다. 저만치 가다 돌아온 엄마가 내 꼴을 보더니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너 손이 이게 다 뭐야! 왜 거길 들어가서 이 난리야!"
등짝을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얼른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니, 다리 밑에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 여기가 할아버지 누워 계신 집 앞인데 남들이 다 버리고 가서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웠어."

엄마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물티슈를 세 장이나 뽑아서 내 손을 꽉 잡았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묻은 까만 흙탕물을 닦아주는 엄마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엄마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내 손등 위로 번졌다. 하지만 평소에 비석 앞에서 흘리던 서럽고 미안한 눈물이 아니었다. 엄마는 코를 팽 풀더니 피식 웃으며 내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별걸 다 하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우리는 매점 옆 쓰레기통까지 걸어가서 캔이랑 플라스틱을 따로따로 버렸다. 캔이 분리수거함 안으로 쾅 하고 떨어질 때 이상하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엄마가 소시지를 사줬다. 손톱 밑에 흙먼지가 조금 남아 까맸지만 엄마는 손 더럽다고 잔소리도 안 했다.

거실에 있는 엄마의 취소된 비행기표를 보면 늘 슬픈 이야기만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 다리 밑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던 내 까만 봉지가 생각날 것 같다. 비석 앞에서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것보다, 손에 흙탕물 묻혀가며 할아버지 앞마당을 치운 게 훨씬 덜 죄송한 일 같다. 다음번에 현충원에 갈 때는 하리보 담는 작은 봉지 말고, 집에서 제일 큰 쓰레기봉투랑 목장갑을 꼭 챙겨가야겠다.

큰 사람 좋은 나라

신○○

군인 아저씨
손바닥은
하늘 만해요
큰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손이기 때문이죠

군인 아저씨
발바닥은
공룡 보다 더 커요
큰 발로 쾅쾅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군인 아저씨
눈은
독수리보다 더 매서워요
우리나라 구석구석 살펴주시는
씨씨티비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이지요

군인 아저씨
귀는
코끼리 귀보다 더 커요
부스럭부스럭
어떠한 소리도 용납하지 않고
누구냐 움직이지마 소리치시기 때문이지요..

아주 큰 사람
군인 아저씨를 너무 너무 사랑해요
아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요

동생의 가방에 달린 작은 나라

김○○

동생의 가방에는 작은 태극기가 하나 달려 있다.

동생이 걸을 때마다 가방 옆에서 달랑달랑 흔들리는 태극기다.

동생은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나는 그 태극기를 볼 때마다 조금 다른 생각이 난다.

국립대전현충원에 다녀온 날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처음 현충원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조금 걱정했다.

동생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싶었다.

나도 현충원은 조용히 걸어 다니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새싹교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우리는 먼저 보훈미래관 2층 교육실에서 ‘불개 천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처음에 동생은 낯선 곳이라 그런지 조금 어색해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자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도 재미있게 보았다.

현충원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왜 이곳에 계신 분들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었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우리는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묘역으로 갔다.

선생님은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걸으셨다.

묘역에는 묘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멀리서 보니 모두 비슷해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이름이 하나하나 달랐다.

나는 그 이름들을 바라보았다.

그분들도 어릴 때는 나처럼 학교에 다녔을까?

동생처럼 장난감을 좋아했을까?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묘비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그동안 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영웅'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날은 영웅이라는 말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참배했다.

옆에 있던 동생도 작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몸을 꼼지락거리던 동생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장난치지 않았다.

나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묘역을 둘러본 뒤에는 태극기 키링을 만들었다.

동생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동생은 작은 손으로 재료를 만지며 열심히 태극기를 만들었다. 완성하고 나서는 몇 번이나 들어 보였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나는 웃으며 동생의 태극기를 보았다.

아까 묘역에서 보았던 이름들이 떠올랐다.

그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전부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우리가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밥을 먹는 평범한 하루.

동생이 아무 걱정 없이 태극기를 만들며 웃을 수 있는 하루.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 동생은 완성한 태극기 키링을 가방에 달았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현충원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동생은 작은 태극기에 담아 온 것 같다고.

며칠이 지나도 동생의 가방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다.

가끔 가방이 바닥에 놓이면 태극기도 함께 바닥에 닿는다. 그럴 때면 나는 가방을 세워 놓는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다.

이제는 그 작은 태극기를 볼 때마다 현충원에서 고개를 숙였던 순간이 생각난다.

나는 나라 사랑이 꼭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는 것, 그분들이 지켜 주신 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충원에서 돌아오던 날, 동생은 가방에 달린 태극기를 만지작거리며 좋아했다.

동생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이 생긴 날이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조금 다른 선물이 생긴 날이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떠올릴 이름들이 생긴 것이다.

동생이 걸을 때마다 작은 태극기가 달랑달랑 흔들린다.

나는 그 소리가 좋다.

그날 현충원에서 배운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라고, 작은 태극기가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사랑을 모르는 할아버지

최○○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역시 언제나 듣던 할아버지의 화다. "에잇, 안 보련다!" 리모컨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역시 역사 채널 방송을 아빠와 함께 본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의 역사를 무시하신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아빠는 저녁마다 할아버지를 끌고 텔레비전 앞에 앉혀 역사 채널을 보시게 한다. 하지만 엔딩은 할아버지의 화가 섞인 리모컨 던지는 소리다.

나는 아빠를 닮았다. 나는 할아버지와 반대로 역사를 엄청 사랑한다. 난 학교에서도 역사 시간이 제일 재밌다. 다른 과목은 거의 다 50점인데도 역사만큼은 100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역사 공부만 하면 싫은 티를 내신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역사 동영상을 억지로 볼 때 눈물을 흘리시는 시대가 있었다. 그건 바로 '일제강점기' 때다. 난 그때 진짜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보았다. 그때는 그저 놀랍기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지금이라도 할아버지의 약한 마음을 건드려 우리 조상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할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다.

오늘 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깐 할아버지께 다른 역사 말고 일단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아빠는 내 말에 솔깃한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밤, 아빠는 할아버지를 또 억지로 끌고 와 텔레비전 앞에 앉혔다. 아빠는 할아버지께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렸다. 처음엔 할아버지는 짜증 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깜짝 놀라셨다. 나는 두 번 봤지만 그래도 좀 놀랐다.

그 다음날 아빠는 일제강점기 관련 책이란 책을 다 사와서 할아버지 서재 책상에다 올려놓으셨다. 나는 그 책을 할아버지가 읽을지 안 읽을지 너무 궁금했다. 아빠도 그런 눈치였다.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다녀오셨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대답도 없이 서재로 들어가 침대에 누우

셨다. 아직 할아버지는 역사책을 못 보신 것 같았다.

“시온아, 학원 가야지?” 엄마가 말했다.

그럼 학원 다녀와서 할아버지가 역사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관찰하겠다고 생각했다. 오늘도 역시 학원 선생님께 잔소리 폭탄을 맞고 집에 돌아왔다. 난 집에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바로 할아버지 서재로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계셨다. 그 뜻은 바로 할아버지가 공부했거나 책을 읽고계시다는 뜻이다. 내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아빠가 사 온 역사책을 보고 계셨다. 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할아버지가 직접 역사책을 사 오셔서 읽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을 소파에 앉혀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온 것 같구나. 살면서 지나간 역사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나 박춘호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존경하고, 우리의 역사를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기억을 걷는 하루

조○○

처음에는 평범한 체험활동이라고만 생각했다. 친구들과 함께 현충원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는 일정이 전부인 것 같았기에 가볍게 의미만 찾으려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사실 역사에 관심이 아주 많은 편도 아니었고, 현충원이라는 곳 역시 조용히 둘러보고 오는 장소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이 내 생각을 크게 바꾸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충원으로 향했다. 평소 체험학습을 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현충원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달라졌다. 높은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공기가 느껴졌다. 모두가 큰 소리로 떠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게 되었고, 나 역시 그 분위기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었다.

푸른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묵묵한 묘비들을 마주했다. 하나하나에는 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이름 뒤에는 가족과 꿈,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아간 한 사람의 삶이 있었다. 같은 나이의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아들이자 부모였을 사람들이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묘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안내를 들으며 묘역을 둘러보는 동안 자연스럽게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졌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희생'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르게 다가왔다. 책에서 읽을 때는 한 줄의 설명으로만 느껴졌던 내용이 실제 장소에서 듣게 되니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름 하나하나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특히 설명해 주신 분께서 어떤 분의 생애를 이야기해 주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다. 그분도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었지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신의 삶보다 더 큰 가치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는 말이 단순히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배를 하고 묵념하는 시간에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평소에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일상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생활 말이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취미생활을 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도 결국 평화로운 사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평소에는 뉴스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도 잠시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직접 현충원을 걸어 보니 그분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분들도 가족과 친구를 사랑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이며,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런 삶을 뒤로한 채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현충원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주변은 더욱 조용했고, 바람 소리와 새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묘비를 하나씩 바라보며 걸으니 자연스럽게 발걸음도 느려졌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였다면 미처 느끼지 못했을 고요함이 오히려 이곳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조용한 공간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떠올리며 묵념하는 시간은 더욱 진지하게 다가왔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설명을 들으며 현충원을 둘러보는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 짧지만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와 생각해 볼만 한 내용들을 들었고,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청춘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경험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체험을 마친 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느낀 점을 공유했다. 친구들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견학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를 함께 걸었지만 각자 마음에 남은 장면은 조금씩 달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다. 아침에 현충원으로 향할 때의 나와 돌아오는 길의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라사랑이 거창한 행동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앞으로는 현충일이나 광복절 같은 기념일을 단순한 휴일로만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날이 왜 존재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작은 관심과 기억이 모여 역사를 이어 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그날 걸었던 길은 현충원의 산책길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기도 했다. 이번 체험은 단순히 현충원을 둘러본 하루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오늘 느꼈던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그날 현충원에서 느꼈던 조용한 분위기와 묵념하던 순간의 마음만큼은 잊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소중하게 만들고 미래를 더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이번 체험은 나에게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뜻 깊은 하루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누군가가 지켜준 어제, 내가 만들어갈 내일

엄○○

2026년 5월, 나는 독도에 다녀왔다.
독도 어린이 의용수비대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접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평소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았던 독도를 실제로 보니 정말 신기했다. 넓은 바다 위에 있는 독도를 바라보는데 문득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그동안 현충원에서 묘역봉사활동을 할때, 독도의용수비대 묘역을 정리하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독도를 직접 보았을 때는 단순히 멋진 풍경을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예전 같았으면 독도를 직접 봤다는 사실만으로 신나했을 텐데, 이번에는 독도를 지켜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생각해 보면 나의 나라사랑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종사촌 형과 누나들을 따라 처음 봉사활동을 갔다. 그때는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형과 누나들이 봉사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같이 놀고 싶어서, 나도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형과 누나들이 하는 일을 따라 묘비를 닦고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다. 묘역이 워낙 넓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었고, 어린 나에게는 묘비를 하나하나 닦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마치고 깨끗해진 묘역을 바라보니 기분이 좋았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느새 중학교 1학년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형과 누나들이 없어도 스스로 묘역을 정리할 수 있다. 현충원에 가면 먼저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묘비에 쌓인 먼지를 닦고, 떨어진 나뭇잎과 쓰레기를 줍고, 시든 꽃이나 낡은 태극기를 정리한다.
처음에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해진다.
'이분도 나처럼 좋아하는 일이 있었을까?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묘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닦게 된다.
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묘역의 태극기를

교체했던 날이다.
처음에는 오래된 태극기를 빼는 일이 쉬울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해 보니 생각보다 힘들었다. 오래 꽂혀 있던 태극기가 잘 빠지지 않았고, 더운 날씨에 땀도 많이 났다.
그래도 내가 맡은 구역은 끝까지 정리하고 싶었다.
낡은 태극기를 수거한 뒤 묘역을 다시 바라보며, 다음에 바람에 펄럭일 깨끗한 태극기를 생각해 보니 힘들었던 것도 잊을 만큼 뿌듯했다.
평소에는 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국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곁에 태극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부터 태극기를 볼 때면 현충원에서 봉사했던 날이 생각난다.
현충원에서 여러 가지 체험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평소 기차를 좋아한다. 모형기차를 만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해서 호국철도기념관에 갔을 때 특히 관심이 많았다.
처음에는 전시된 기차가 신기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6·25전쟁 당시 기차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을 듣고 조금 놀랐다.
나에게 기차는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곳에 갈 때 이용하는 즐거운 교통수단이었는데, 전쟁 당시에는 나라를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기차에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보훈스쿨에서는 현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현충탑과 현충문을 만드는 활동도 했었다. 직접 만들면서 현충원이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 현충문 앞에서 대표학생으로 묵념 의전을 맡았던 날도 기억에 남는다. 비가 많이 내려 예정했던 활동을 모두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묵념한다는 것이 조금 긴장되면서도 뜻깊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할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현충원에서 여러 묘역을 둘러보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특히 독립유공자 묘역과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평화로운 일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시험을 위해 연도와 사건을 외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충원에서는 교과서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서 역사 속 사건에는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충원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마음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형과 누나들을 따라다니며 시키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할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
예전에는 봉사활동을 마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는 현충원 밖에서도 이어졌다.
나는 평소 우리 동네에서 플로깅을 하거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 치우겠지 하고 지나가기보다 내가 먼저 주우려고 한다.
또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불편하거나 위험한 점을 찾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이런 활동이 나라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충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꼭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살아가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라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찾아서 꾸준히 실천할 수는 있다.
가끔은 학교생활이 힘들 때도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한 날도 있고, 공부나 새로운 활동이 생각처럼 잘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속상하기도 하다.
하지만 현충원에서 봉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된다.
나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수 있고,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나는 아역연기자와 아역모델로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꿈꿀 수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진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현충원에서 배운 나라사랑도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꼭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처음 현충원에서 묘비를 닦았을 때는 그저 먼지를 닦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그 행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독도를 직접
방문했을 때 현충원이 떠올랐던 것도 아마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배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독도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땅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곳을 지켜 주신 분들의 노력까지 함께 떠올리게 되었다.
그때문에 나는 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한 것 같다.
처음에는 형과 누나들을 따라 시작했던, 어린 꼬마가 이제는 스스로 봉사활동을 이어 가고 있고, 단순히 묘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그곳에 잠들어 계신 분들을 기억하는 마음도 배우게 되면서,
앞으로도 현충원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싶다.
또 내가 경험한 것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싶다. 현충원이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다.
나는 아직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묘비를 닦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때는 작은 손으로 묘비를 닦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는데, 지금은
그 작은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현충원을 찾았을 때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분들이 지켜 주신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할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어제가 있었기에, 나는
오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나라사랑은 멀리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배우고 느낀 나라
사랑이다.

길을 잃어야 닿는 곳

김○○

우리 집에서 대전현충원은 명절마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기일마다 아빠 차를 타고 편하게 들르던 곳이었다. 뒷좌석에 기대 에어컨 바람을 쐬며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어느새 주차장에 닿아 있었다. 차 문이 열리면 내려서 비석 앞에 꽂 한 다발 두고, 5분쯤 서 있다가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전부였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다 찾아주었으니 현충원이 얼마나 넓은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 과제 조장을 정할 때 내가 손을 번쩍 들었다.
“나 현충원 완전 자주 가봤어. 나만 믿어, 1시간 만에 사진 다 찍고 궁동 가자.”
그 자신감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는 지하철 현충원역 2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깨달았다. 역 밖으로 나가면 바로 커다란 정문이 보일 줄 알았는데, 눈앞에는 타이어 가게와 식당 간판뿐이었다. 지도 앱을 켜보니 정문까지 2.4킬로미터, 걸어서 35분이라는 숫자가 떴다. 친구들은 뒤에서 “야, 도착했다며? 정문 어디 있어?” 하고 중얼거렸다. 당황한 티를 내면 모양이 빠지니까 서둘러 택시 승강장으로 애들을 밀어 넣었다.

넷이서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룸미러로 우리를 힐끔거렸다.
“학생들 넷이 주말 아침부터 현충원은 왜 가나?”
“학교 숙제 때문에 사진 찍으러 가요.”
아저씨는 피식 웃더니 핸들을 돌렸다.
“옛날에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택시들이 다 도망갔어. 유성 바깥은 깡시골이라 미터기 끄고 웃돈 안 주면 아예 가지도 않던 데야. 요즘 애들은 지하철역까지 뚫려 있으니 참 편하게 살지.”
미터기를 끄고 가던 외딴곳. 아저씨 말을 들으며 차창 밖을 보는데, 다리를 지나자마자 번화한 건물들은 싹 사라지고 소나무 숲만 길게 이어졌다. 아빠 차 안에서 스마트폰만 볼 때는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풍경이었다. 내가 알던 현충원은 그저 차가 데려다주는 주차장 몇 평이 전부였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진짜 문제는 정문을 지나고 나서였다. 걸어서 들어간 현충원은 차로 다닐 때와

완전히 딴판이었다. 걸어도 걸어도 똑같은 소나무에 똑같은 비석들만 나와서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야, 조장. 아까부터 우리 계속 같은 자리만 도는 거 같은데?”
“나 단화 신어서 발에 물집 잡힐 것 같아. 탑이 도대체 어디야?”
친구들의 불평이 등 뒤로 쏟아졌다. 길을 잃었다고 말하면 조장 체면이 안 서서 손바닥에 땀을 쥐며 지도 앱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의 위치’ 파란 점은 묘역 사이에서 혼자 뱅뱅 돌았다.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야” 하고 둘러대며 가파른 비탈길 계단을 억지로 올라갔다.

그렇게 엉뚱하게 도착한 곳은 참배객도 없는 사병 묘역 구석진 언덕이었다.
친구들은 그늘을 찾아 주저앉아 손부채질을 해댔다. 나도 숨이 차서 비석 옆에 기대려다, 돌 뒤쪽에 파인 글씨를 무심코 보았다.
‘1950년 8월 전사.’
그 옆에 적힌 생년월일을 보고 속으로 뺄셈을 해보았다. 열여덟 살이었다.
머리가 띵했다. 열여덟 살.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오빠보다 딱 한 살 많은 나이였다. 집에서 맨날 벗어둔 양말 아무 데나 던져놓고 밥투정하는 오빠와 똑같은 나이였다. 옆을 둘러보니 그 비석만이 아니었다. 길을 잃어서 기어 올라온 이 외딴 언덕에 줄지어 박힌 돌들은 전부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이었다. 지금 내 등 뒤에서 덥다고, 발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 내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나이였다.
“야! 조장, 멍 때리지 말고 얼른 찍어. 버스 놓치면 진짜 너 죽는다.”
친구가 내 팔을 잡아끌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비석을 배경으로 넷이 나란히 섰다. 친구들은 지친 와중에도 익숙하게 브이 자를 그리며 웃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렌즈를 쳐다보았지만 도저히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찰칵 소리가 나자마자 친구들은 “과제 끝났다, 뛰어!”를 외치며 언덕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다.
달려가는 친구들의 뒤를 쫓아가며 나는 비석들을 힐끔 돌아보았다. 뙤약볕 아래 똑같은 크기로 서 있는 돌들. 아빠 차를 타고 올 때는 보이지 않던 곳이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던 내 주말의 평화가, 실은 택시조차 미터기를 끄고 들어오려던 이 외딴 산자락에 묻힌 열여덟 살들의 침묵 위에 그저 공짜로 얹혀 있던 것이었다.

현충원역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올라타 카드를 찍었다.
‘청소년입니다.’
늘 무심코 넘기던 기계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먹먹하게 가슴을 눌렀다.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속에서 친구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뒤로 그 소년의 비석이 흐릿하게 배경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안다고 믿었던 현충원은 정해진 길로만 편하게 지나치던 껍데기에 불과했다. 발이 부르트도록 헤매고 나서야, 어른들이 미터기를 끄고 밀어내려 했던 도시 밖 골짜기에서 끝내 자라지 못한 소년들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들의 멈춰버린 열여덟 덕분에 오늘도 아무 탈 없이 흘러가는 나의 열다섯 살. 차창 밖으로 저 멀리 능선이 멀어지는 동안,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가만히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과제는 끝났지만, 길을 잃었던 그 언덕길 위에서 시작된 부끄러움과 먹먹한 질문 하나는 내 안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 같았다.

군복 입은 잔디

조○○

군복 입은 잔디여
그대는 어디에 있나요

강을 건널 때는 다리가 되어 주고
산을 넘을 때는 길이 되어 주고
평지를 뛸 때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죠.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었기에
우리도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대를 찾으려 길을 가 보았을때는
군화발자국만 있었지요.
그 자국을 따라 가 그대를 찾으면
항상 돌에 새겨진 이름뿐이지요.

그러면 눈을 감고
지그시
내 마음 속의 당신을 생각하고
꽃 한송이를 둔 다음
그대로 가버리지요.

그날의 바다, 오늘의 교실

류○○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서자, 오래전 함정에서 들었던 출항 방송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날 나는 담임을 맡은 반 학생 몇 명과 함께 현충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면장갑을 끼고 비석 사이에 쌓인 낙엽을 주웠다. 바람에 쓰러진 작은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세우고, 비석 주변에 흩어진 나뭇가지를 한쪽으로 모았다. 처음에는 다소 들떠 있던 아이들도 묘역 안으로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군인이에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라고 답하자, 질문한 아이는 잠시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허리를 숙여 낙엽을 주웠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의 봉사활동이 단순히 묘역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 끝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묘역 사이를 걷다가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가지런히 놓인 비석과 흰 국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다. 비석마다 한 사람의 이름과 짧은 생의 시간이 새겨져 있었다. 대부분 너무도 젊었다.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형이나 동생이었을 것이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도,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집도 있었을 것이다.

한 아이가 비석을 바라보다 물었다.

“선생님, 다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에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오래 묻어 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2010년, 나는 해군 OCS로 임관해 해군 제2함대 소속 구축함 을지문덕함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부대 전체를 감싼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분주히 오가는 장병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짧게 오가는 말에도 긴장감이 묻어났다. 함정에 오르자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희미한 조명 아래로 이어진 차가운 철제 통로, 기름과 쇠 냄새가 뒤섞인 함내의 공기는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승조원들의 얼굴은 달랐다. 장비를 점검하는 손길은 바빴고, 누구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 매일같이 오가던 서해에서, 손을 흔들며 스쳐 지나가던 같은 제2함대 소속 함정이 바다 아래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쉽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실종된 승조원들을 찾아야 했다. 살아 있을지 모르는 전우들을 위해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가족에게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기다려야 할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나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군인이었다. 그러나 함정에 오르는 순간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미뤄야 했다. 누군가는 함정을 움직여야 했고, 누군가는 장비를 점검해야 했으며, 누군가는 밤새 바다를 살펴야 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비상 경계를 위한 긴급 출항 명령이 내려지고 을지문덕함은 어두운 서해로 나아갔다. 육지의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함정 주변에는 검은 바다만 남았다. 차가운 바람이 갑판을 훑고 지나갔고, 파도 소리와 함정의 기계음이 어둠 속에서 뒤섞였다. 평소에도 수없이 보았던 바다였지만 그날의 바다는 전혀 달랐다. 어둠 속 어디엔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전우들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시작된 임무는 이른바 '필승 50일 작전'으로 이어졌다. 바다 위에서는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졌다. 당직을 서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밥을 먹다가도 함내 방송이 울리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송이 나올 때마다 모두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구조 가능성이 발견된 것은 아닌지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은 쉽게 오지 않았다. 오히려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링스 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식판 앞에 앉아서도 동료들의 말수는 줄어들었다. 누구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표정만으로도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벽 당직을 마치고 갑판에 서서 바라본 수평선을 아직도 기억한다. 밤새 검었던 바다가 조금씩 푸른빛을 되찾고 있었다.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마음껏 바라볼 수 없었다. 저 바다 어딘가에 끝내 돌아오

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도를 밀어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아래에 전우들이 잠들어 있고, 육지에서는 수많은 가족이 기적 같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바다에서 나는 나라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배웠다. 나라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다. 국가 역시 멀리 있는 거대한 개념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아이들이 웃는 교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는 거리,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곧 국가였다.

군인이 바다를 지키는 이유도 결국 국민이 자신의 일상을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누군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누군가는 아무 걱정 없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일이었다. 천안함 승조원들도 그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바다에 있었다. 그들 역시 특별한 영웅이기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거창한 국가의 이름만이 아니라 가족이 기다리는 집과 국민의 일상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군복을 벗고 교단으로 돌아왔다. 매일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고, 수업을 하고, 함께 웃으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너무도 익숙해 때로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하루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바쁜 일상 속에서 잊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아이들과 함께 천안함 용사들의 이름을 마주하자, 마음 한쪽에 묻어 두었던 바다가 다시 밀려왔다.

아이들은 비석 주변의 낙엽을 걷어 내고 먼지를 닦았다. 한 아이는 쓰러진 태극기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의 흙을 손으로 단단히 눌러 주었다. 또 다른 아이는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말없이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 낙엽은 다시 쌓이고, 비와 바람은 비석 위에 흔적을 남길 것이다. 기억도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흐려질 수 있다. 오늘 아이들이 비석 앞의 낙엽을 치우고 태극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 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바라보고, 그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일이었다.

봉사활동을 마치며 아이들을 천안함 묘역 앞에 모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도 그때 같은 바다에 있었단다.”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나는 천안함 사건 당시 을지문덕함 승조원으로 비상소집을 받고 출항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웅담을 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도 두려웠고, 가족이 걱정되었으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바다에서 그저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 아이들은 평소 수업 시간보다 훨씬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은 여기 계신 분들을 직접 알았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나는 모두를 직접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같은 함대에서 같은 바다를 지키던 전우들이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천안함은 내게 뉴스 속 사건이나 교과서 속 역사가 아니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흔히 '천안함 46용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의 얼굴과 목소리, 가족과 꿈이 있었다. 46이라는 숫자 뒤에는 46개의 삶과 그들을 기다린 수많은 가족의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그날 같은 바다에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무사히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평범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바다에 있었지만 누군가는 돌아왔고, 누군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묘역 앞에 서면 감사함과 함께 미안함도 느껴진다.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기억하는 일이다. 기억은 과거에 머무는 행동이 아니다. 희생의 의미를 오늘의 삶에서 되새기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다. 천안함을 발생 연도와 희생자 수만 외우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겨 두지 않는 일이다. 그날의 바다에 실제 사람들이 있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기다린 가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이다.

나라사랑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해내는 것, 주변 사람의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비석 앞의 낙엽을 걷어 내고 쓰러진 태극기를 바로 세우는 아이들의 작은 손길에도 나라사랑의 마음은 담길 수 있다.

돌아가는 길, 평소 장난이 많던 한 학생이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손에는 봉사활동을 하며 벗어 둔 면장갑이 들려 있었다. 현충원을 나서기 전, 아이는 뒤를 돌아

천안함 묘역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바다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나 하나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품고 있던 기억이 오늘 함께 묘역을 닦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흔적으로 남기 시작한 듯했다.

현충원을 나서기 전, 나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가지런한 비석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작은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순간 오래전 함정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출항 준비.”

그날 나는 그 명령을 따라 어두운 바다로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를 찾고, 국민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아이들과 함께 또 하나의 출항선 앞에 서 있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바다는 교실이었다.

나는 그날의 두려움과 책임감,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을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다. 천안함을 교과서 속 한 줄의 사건이나 ‘46명’이라는 숫자로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친구였으며, 꿈을 품었던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군인이었던 나는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다. 교사가 된 나는 이제 기억으로 나라를 지키려 한다. 오래전의 출항 명령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날에는 바다를 향한 명령이었고, 오늘은 아이들의 마음을 향한 명령이었다.

“출항 준비.”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였다.

비석이 가르치고 교실이 받아쓰다

임○○

매일 아침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 칠판 위에 써 내려가는 지식과 아이들에게 건네는 훈육의 말들이 그들의 미래를 일구는 거름이 되길 바라며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정작 교육자인 나는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늘 고민에 빠지곤 했다. 교과서 속의 활자로만 존재하는 애국은 아이들의 삶에 닿지 못한 채 공중에 흩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압도하는 현충탑의 수직적 위용은, 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던 나에게 "이제 그만 고개를 들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을 보라"고 일갈하는 듯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현충탑 아래,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 위패봉안실의 문을 열었다. 그곳은 묘역의 비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이름 석 자로만 남은 수만 명의 영혼이 잠든 곳이다. 사방의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위패들을 마주하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짐을 느꼈다. 시신도, 묘비도 없이 오직 이름으로만 현존하는 이들의 방.

나는 그곳에서 묘한 압도감을 느꼈다. 밖의 묘역에 있는 비석들이 우리가 누리는 '수평적인 평화'를 상징한다면, 이곳의 위패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수직적인 기둥' 같았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눈으로 훑어 내려가며 생각했다. 이 수만 명의 이름 뒤에는 각기 다른 꿈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전선으로 향하기 전 책상 앞에 앉아 학문에 정진하던 학생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미래를 약속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부재(不在)'는 때로 '존재'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름만으로 가득 찬 이 방은, 우리가 지금 교실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자유로운 토론과 웃음이 얼마나 많은 '돌아오지 못한 청춘'들 위에 세워진 것인지 서늘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교육자로서 나는 이곳에서 내가 짊어진 교육적 사명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수많은 이름이 지켜낸 '자유의 비용'에 대한 감사여야 함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위패봉안실의 무거운 정적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자, 현충원을 감싸 안은 보훈 둘레길의 푸른 숲이 나를 반겼다. 죽은 자들이 잠든 공간을 살아있는 생명들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이 구조는 묘한 감동을 준다. 나는 나무들이 빽빽한 숲길을 걸으며, 이곳의 공기가 유난히 맑은 이유를 생각했다. 그것은 아마도 이곳에 잠든 수많은 영혼이 내뿜는 '수호의 숨결'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생태심리학적 관점에서 숲은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다. 하지만 현충원의 숲은 단순한 자연을 넘어 '계승'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선열들이 지켜낸 강토에서 자라난 나무들이 그들의 묘역에 그늘을 드리워주고, 그 숲을 오늘날의 후손들이 걷고 있는 모습. 이 평화로운 풍경이야말로 나라사랑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구체적인 '생명력'으로 변환된 모습이다.

둘레길을 걷는 동안 나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겪는 사소한 갈등과 교육 현장의 여러 난제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 숲은 나에게 속삭였다. "너의 가르침 또한 이 생태계의 일부이며, 네가 아이들을 한 명의 온전한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 자체가 이 평화로운 숲을 유지하는 힘이다." 나라사랑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선열들이 물려준 이 땅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수평적 연대'에 있음을 숲길 위에서 깊이 체험했다.

체험 활동의 마지막 코스로 들른 보훈 미래관에서 본 영상물은 나에게 또 다른 경종을 울렸다. 과거의 전쟁이 총칼의 부딪힘이었다면, 영상 속에 투영된 현대의 위기는 '보이지 않는 기술과 경제의 각축장'이었다. 현충원에 잠든 이들이 지킨 것이 영토였다면,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그 영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독립'과 '실력'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무기화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지금, 교육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진다.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自强)"는 현충원의 가르침은 교실에서 '실력의 배양'으로 치환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 그리고 분열된 사회 속에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잃지 않는 건강한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현대판 '병참'이자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애국이다. 현충탑의 수직적 기개처럼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당당히 솟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파수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현충원을 나서는 길,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현충탑을 바라보았다. 아침에 보았던

그 수직의 차가운 석탑은 이제 내 마음속에 뜨거운 교육적 이정표로 남았다. 이번 체험 활동은 나에게 두 가지 큰 가르침을 남겼다. 하나는 이름만 남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선 교단의 무게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위패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 평화로운 숲과 같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둘레길의 책임감'이다.

나는 이제 다시 나의 전장인 교실로 복귀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내가 마주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내가 판서하는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나는 이 나라를 구성할 소중한 '희망'들의 온기를 느낄 것이다. 나라사랑은 거창한 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열된 사회 속에서 아이들에게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내가 맡은 교육의 직무를 묵무히 완수하며, 일상의 소소한 배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살아있는 애국'이다.

현충탑의 수직적 자부심과 둘레길의 수평적 평화를 가슴에 품고, 나는 내일 아침 아이들을 맞이할 것이다. 위패봉안실의 그 수많은 이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의 미래를 길러내는 조타수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굳게 다짐한다.

형이 지키던 나라에 무궁화가 핀다

전○

형은 하늘을 날았다. 어렸을 때 나는 형이 제복을 입고 집에 오는 날을 좋아했다.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과 모자, 어깨에 붙은 계급장이 어린 내 눈에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종사가 된 형은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나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지나갈 때면 저 안에 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럴 리 없는 날이 더 많았겠지만, 어린 마음에는 하늘을 나는 모든 비행기가 조금씩 형의 것처럼 보였다.

그 시절 내게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군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높은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 나는 형이 오래도록 그 하늘에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사람의 삶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구름이 있는가 하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알 수 없는 구름도 있다.

훈련 중 사고가 있었다. 형은 살아 돌아왔지만, 예전의 형으로 온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다.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고 오랜 치료가 이어졌다. 결국 형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입었던 군복을 벗어야 했다. 하늘을 날던 사람이 더 이상 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그것을 형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다.

가족이란 참 이상하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물을 수 있는 말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차마 묻지 못한다. 너무 가까워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묻지 못하면 다음에 물으면 된다고 미룬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음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형은 자신의 상처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애써 캐묻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

군복을 벗은 뒤 형은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형에게서 뜻밖의 모습을 보았다.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도우러 다녔다. 형은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퇴역 군인들을 챙겼고,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국가유공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마음을 썼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자신에게 넉넉한 것이 많아서 나누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가끔 형이 못마땅했다. 남을 돌볼 시간에 자기 몸부터 돌렸으면 했다. 다른 사람 걱정의 절반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썼으면 했다. 세상 사람의 어려움을 형이 모두 책임질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남의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지 답답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자꾸 눈길이 가는 방향이 있는 모양이다.
젊은 날 형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뒤 형의 눈은 점점 낮은 곳으로 향했다. 아픈 사람에게로, 어려운 전우에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로,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에게로 내려갔다. 그때의 나는 그것을 나라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 크고 장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리며, 제복을 입은 누군가가 큰 희생을 해야만 비로소 나라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줄 알았다. 형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나라를 지켰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뒤에도 형의 나라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랑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하늘을 향하던 사랑이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형이 무지개나라로 먼 여행을 떠났다. 형은 자기 몸 하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먹어야 할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다. 남의 사정을 그렇게 잘 살피던 사람이 정작 자기 몸의 사정에는 무심했다. 형이 떠난 뒤 방을 정리하다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을 보았다. 아무 말 없이 남아 있는 것들을 한동안 치우지 못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섭섭했고 때로는 화가 났다. 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돌보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친절의 절반만이라도 왜 자신에게 베풀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그렇게 남을 살피면서 정작 왜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고 싶었다. 그러나 대답할 사람은 이미 없었다.
사람이 떠난 뒤에는 이상하게 질문이 많아진다. 살아 있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묻지 않았던 것들이,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된 뒤에야 하나씩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나도 형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하늘을 날던 때 정말 행복했느냐고, 군복을 벗던 날에는 얼마나 아팠느냐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뎠느냐고 묻고 싶었다. 그리고 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도왔느냐고도 묻고 싶었다.
무엇보다 한 가지를 묻고 싶었다. 형, 그래도 형의 삶은 괜찮았어? 이제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얼마 뒤 나는 나라사랑 체험교육의 하나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호국배움

투어버스를 타고 현충원 안을 천천히 돌아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창밖으로 가지런한 묘역과 나무들이 지나갔고, 처음에는 그저 잘 정돈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비석마다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면 비슷한 비석들이었지만, 가까이 생각하면 그 어느 것도 같지 않았다. 그 이름마다 한 사람의 생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아들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형이었을 것이다. 그 순간 서울현충원 납골당에 모셔진 형이 떠올랐다. 나는 대전현충원에 있었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는 형의 이름 앞으로 가 있었다. 그날 나는 '호국'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다. 나는 호국을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충원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나라를 위해 내놓은 시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않는 것 또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충원은 떠난 사람들이 머무는 곳만은 아니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었다. 그날 비로소 형의 두 삶이 하나로 보였다. 형은 젊은 날 하늘에서 나라를 지켰고, 하늘에서 내려온 뒤에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지켰다.

이후, 나는 무궁화를 그리게 되었다. 무궁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꽃이다. 어릴 때부터 나라꽃이라고 배웠고 수없이 이름을 불렀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정작 꽃 한 송이를 오래 바라본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화가가 되어 무궁화를 그리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가 알고 있던 꽃과는 조금 달랐다. 꽃잎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흰빛과 분홍빛 사이에는 어느 한쪽의 이름으로 부르기 어려운 색이 숨어 있었고, 꽃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붉은빛은 깊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린 꽃인데 그 한가운데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붉은 기운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 붉은 부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형이 생각났다. 나는 오랫동안 형을 강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종사가 되어 높은 하늘을 날았던 사람, 제복이 잘 어울렸던 사람,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사람. 그러나 형도 한없이 여린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고 뒤에는 아팠을 것이고, 더 이상 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진 날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상처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나는 붓 끝에 붉은색을 조금 더 묻혔다. 캔버스 위에 무궁화 한 송이가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부터 내게 무궁화는 조금 다른 꽃이 되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나라꽃이기 전에 한 사람의 생을 떠올리게 하는 꽃, 강함과 여림을 함께 품고도 다시 피어나는 꽃이 되었다. 그리고 그 꽃을 볼 때마다 형이 생각

났다.
나는 무궁화미술대전을 통해 무궁화를 그리고 알리는 활동에 참여했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시에도 작품을 선보였다. 이후에도 여러 전시에 참여하며 그림과 시를 통해 무궁화를 알리는 일을 이어갔다. 국회의사당에 내 무궁화 그림이 걸려 있는 모습을 처음 바라보던 날을 기억한다. 그곳에서는 나라의 큰일을 이야기한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논의하며 국가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런 공간 한편에 내가 그린 무궁화 한 송이가 아무 말없이 걸려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군인이 지키는 하늘도 나라일 것이다. 국회의사당에서 만드는 법과 제도도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 어려운 이웃에게 밥 한 끼를 건네는 일, 혼자 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잠시라도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는 일. 그런 작은 일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한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형의 두 삶이 처음으로 하나로 이어졌다. 형은 젊은 날 하늘에서 나라를 지켰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뒤에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지켰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서로 다른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같은 마음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무궁화를 그리는 일은 국회의사당 전시로 끝나지 않았다. 전국의 여러 전시에 참여하면서 무궁화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했고, 그림뿐 아니라 시를 통해서도 이 꽃에 담긴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 그림으로 피운 꽃을 글과 말 속에서도 한 번 더 피워보고 싶었다. 누군가 내 그림 앞에 잠시 멈추어 무궁화를 바라보는 것으로도 좋았다. 누군가 내가 쓴 시 한 편을 읽고 우리나라의 꽃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내가 꽃 한 송이를 그린다고 나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 한 편을 쓴다고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다시 형을 생각했다. 형이 국가유공자 한 사람을 돕는다고 모든 국가유공자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려운 아이 하나에게 손을 내민다고 세상의 모든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형은 했다. 자신이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고, 자신이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자신이 잡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형의 방식이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나도 다시 붓을 들 수 있었다. 한 송이를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송이를 그렸다.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작은 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형과 많이 다른 사람이다. 형의 손에는 조종간이 있었고 내 손에는 붓이

있다. 형은 군복을 입었고 나는 물감 묻은 옷을 입고 캔버스 앞에 선다. 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고, 나는 나라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궁화를 그리고 시를 쓴다. 예전에는 이 두 삶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세상의 어느 한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군인은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을 지킨다. 교사는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의 내일을 지킨다. 봉사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의 오늘을 지킨다. 그리고 화가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던 꽃 한 송이를 다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라사랑'이라는 큰 말도 조금 작고 따뜻해졌다. 나는 오히려 그 작아진 말이 좋다. 너무 큰 말은 때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라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일 역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형은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무궁화는 한 송이가 오래 피어 있는 꽃은 아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이 저녁이면 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 송이가 지면 다른 꽃이 다시 핀다. 그래서 나무 전체를 바라보면 꽃이 계속 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 모습이 좋다. 한 사람의 생도 어쩌면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한 사람은 떠난다. 그가 입었던 옷도, 사용하던 물건도, 목소리도 조금씩 우리 곁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넨 마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조금 이어가면 된다. 나는 형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없다. 비행기를 몰 수도 없고, 형이 걸었던 군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형이 만났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형이 베풀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줄 수도 없다. 그러나 형이 내게 남긴 마음 하나쯤은 이어갈 수 있다. 내가 가진 붓으로 무궁화를 그리고,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시와 글로 그 꽃의 의미를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누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이제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예전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큰 희생을 해야만 나라사랑은 아닐 것이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 것,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우리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 모든 작은 일이 모여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형은 내게 그것을 말로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떠났다.

오늘도 나는 무궁화를 그린다. 꽃잎 하나를 그리고 잠시 붓을 놓은 뒤 조금 떨어져서 그림을 바라본다. 연한 꽃잎 사이로 가운데의 붉은빛이 보인다. 그 색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형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제는 공군 제복을 입었던 젊은 형의 모습만 떠오르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형,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형,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내밀던 형의 얼굴이 더 자주 떠오른다.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그 얼굴이 더 좋다. 하늘을 날던 형도 형이었다. 땅에 내려와 사람의 손을 잡던 형도 형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 것 같다. 하늘을 지키는 일과 사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붓을 든다. 한 송이 옆에 또 한 송이를 그린다. 먼저 핀 꽃은 언젠가 지겠지만 그 곁에서 다른 꽃이 다시 피어날 것이다. 무궁화가 오래 피어있는 것은 한 송이가 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는 꽃 곁에서 다른 꽃이 계속 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의 마음 한 조각을 이어받는 것.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는 것.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조금씩 계속되는 것. 형은 이제 하늘을 날지 않는다. 하지만 형이 지키던 하늘은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있고, 그 하늘 아래에서는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그 땅 위에서 무궁화를 그린다. 형의 손에는 조종간이 있었고, 내 손에는 붓이 있다. 참 다른 형제다. 그런데 오래 살아 여기까지 돌아와 보니, 어쩌면 우리는 아주 다른 길을 걸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오늘도 캔버스 앞에 앉아 무궁화 한 송이를 그린다. 먼저 꽃의 윤곽을 그리고, 천천히 꽃잎을 채운다. 마지막으로 꽃 한가운데에 붉은색을 올린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는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인다. 잠시 그 하늘을 바라본다. 어린 시절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형을 찾던 그 하늘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그때는 하늘에서 형을 찾았고, 지금은 내가 그린 꽃 속에서 형을 만난다. 한 사람은 떠났지만, 그가 바라보던 곳은 남아 있다. 한 사람이 지키던 마음도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꽃을 그린다. 형이 지키던 나라에 오늘도 무궁화가 핀다.

비석위에 새겨진 이름, 가슴에 지은 집

엄○○

가지런히 줄지어 선 돌꽃 사이로
바람마저 걸음을 조심스레 낮추는 곳,
계룡산 자락이 포근히 감싸 안은 언덕에
오늘 나의 작은 손길을 보탭니다.

체험관에서 흘러나오던 조용한 이야기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이 하루가
누군가 치열하게 지켜낸 내일이었음을
배우고 나서 마주한 묘비는
더 이상 침묵하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정성껏 마른 수건을 들어
비석에 새겨진 붉은 이름들을 가만히 닦아냅니다.
돌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그분들이 간직했던 청춘의 계절과
남겨진 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닦아냅니다.

시든 꽃을 건져내고 새 꽃을 올리는 동안
바쁘게 살아가며 잊고 지냈던
감사의 깊이가 가슴 가득 차오르고,
돌보지 못했던 나의 시간들도
조용히 다듬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돌봄은 누군가를 돕는 일인 줄 알았는데
고개 숙여 봉사하는 이 순간,
오히려 내 마음이 커다란 위로를 받습니다.

돌아서는 길,
바람에 날리는 태극기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나직이 약속 하나를 남깁니다.

오늘 배운 숭고한 기억을 잊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 나의 하루를
더욱 성실하고 다정하게 살아가겠노라고.